

韓國社會에서의 西歐民主主義 價値의 影響

李 萬 甲

I. 序 言

III. 日政期

II. 朝鮮朝末期

IV. 結 論

I. 序 言

제시된 主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筆者는 먼저 두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하나는 西歐民主主義의 概念을 밝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主題를 어떤 理論의인 틀에서 어떤 方法으로 다루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概念이든 概念을 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社會科學자들이 다루는 概念들은, 日常的으로 사용하는 말을 學術的인 用語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보고 만져서 知覺할 수 있는 것이 아닌 現象을 지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더욱 규정하기가 힘들다. 그 중에서도 民主主義처럼 定義를 내리기 힘든 概念은 별로 많지 않을 듯한 생각이 든다. 어떤 社會學者가 말했듯이 民主主義라는 말은 民主主義의 宗主國인 것처럼 자처하고 있는 美國에서조차도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진 말로 사용되고 있다. 가령 美國의 黑人이 뜻하는 民主主義와, 黑人에 대하여 강한 差別意識을 갖고 있는 쿠·크락스·크란이 말하는 民主主義는 서로 상충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¹⁾

1) Williams, Jr., R.M., *American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pf, 1955), pp. 432~434

民主主義라는 概念이 애매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그것이 흔히 다른 概念들과 혼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民主主義는 自由라든가, 平等, 進歩, 個人主義, 人權, 福祉등의 概念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民主主義는 그런 概念들이 뜻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거나 접쳐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概念들은 서로 엇갈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상충되는 측면을 갖고 있는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民主主義의 概念은 더욱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가령 自由와 平等은 民主主義에서 빼어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概念들로 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自由와 平等은 언제나 조화될 수 있는 概念들은 아니며,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아주 상치되는 概念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²⁾

美國社會에서 民主主義라는 말이 다양한 뜻을 가진 말로 사용되고 있다면, 西歐民主主義라는 말은 더욱 애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느껴진다. 西歐民主主義는 西歐社會에서 발생하고 전개된 모든 民主主義의인 概念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共產主義는 西歐社會에서 발생했으며, 共產主義者는 共產主義를 民主主義에 배치되지 않을 뿐아니라, 民主主義에 합당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西歐民主主義라고 할 때 그것은 共產主義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西歐民主主義라는 말은 筆者가 인식하기로는 오늘날의 東歐, 즉 소련과 소련의 강한 영향하에 있는 지역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共產主義, 人民民主主義와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다. 그것은 흔히 自由民主主義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만큼 西歐民主主義는 言論, 出版, 結社, 信仰에 있어서의 自由는 물론이고, 居住地 이전·職業의 선택의 自由, 旅行의 自由, 그리고 반대할 自由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동시에 政治的으로 그것은 專制主義의 및 全體主義의 政治體制에 반대하며, 國民의 최대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權力構造를 형성하는 것을 주장하는 理念이기도 한

2) 上揭書, p. 410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西歐民主主義는 우선, 그런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급적 包括的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다음에 고려할 문제는 理論的인 틀의 문제이다. 한 地域에 사는 사람들이 外來思想이나 價値觀念에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배격하느냐 하는 것은 주로 그 사람들의 意識과 그 社會의 構造的인 특성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특히 각자가 社會構造안에서 놓여 있는 地位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가 地位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心理狀態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筆者는 이러한 각도에서 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는 韓國인들이 西歐의 近代의인 문물에 접하기 시작한 19世紀말에서 지금에 이르는 약 1世紀에 걸친 기간을 朝鮮朝末期, 日政期, 그리고 解放後의 세 時期로 나누어서 진행시키고자 한다. 왜냐 하면 그 세 시기는 政治·經濟的으로나 또 社會·文化的으로 확연히 특징을 달리하는 시기이며, 주제로 삼고 있는 西歐民主主義의 영향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Ⅱ. 朝鮮朝末期

朝鮮朝社會는 시대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政治的으로는 中央集權의 官人支配社會였고, 經濟的으로는 土地에 의존하여 穀作을 중심으로 하는 農業을 근간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 社會的으로는 兩班, 鄉班·土班, 中人, 庶孽, 常民, 賤民등의 世襲的인 身分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³⁾ 文化的으로는 샤머니즘을 비롯하여 土着的인 民間

3) 朝鮮朝시대의 身分階層을 보통 兩班, 中人, 常民, 賤民의 넷으로 나누지만 筆者는 鄉班·土班과 庶孽의 境界의 身分階層의 존재를 社會變化를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Lee, Man-Gap, *Sociology and Social Change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2), pp. 3~28 參與.

信仰思想이 모든 사람의 意識의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佛敎, 道敎, 陰陽五行說등의 宗教의 내지 哲學的 觀念이 어느정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兩班支配階級이 융상하고 있었던 理念은 儒敎였으며, 따라서 儒敎思想은 표면상 韓國社會의 知的風土를 지배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반庶民들의 生活(특히 家族生活)과 意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世紀 후반기에 이르러 朝鮮朝社會는 안에서의 모순의 확대와 밖으로부터의 충격에 의해서 점차 격동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에서 既存秩序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여러 身分階層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노력은 權力構造의 결함과 社會의 부조리에 에민하고, 내외의 정세변화에 관한 情報에 접하기 쉬운 일부 兩班들에서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주로 中國을 통하여 西歐의 基督教思想과 物質的, 技術的 文明에 매혹되어 새로운 改革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基督教思想의 전파와 實學思想의 擡頭이다. 改革을 시도하는 움직임은 政治的으로 또 文化的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中國이 西歐列強의 압박에 압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충격이 직접 韓國에도 미치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이웃나라인 日本이 성공적으로 西歐로 부터의 충격을 흡수하여 近代化의 탈바꿈을 함에 따라 더욱 촉진되었다.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는 보다 강력한 운동은 몰락한 兩班인 鄉班과 土班, 그리고 庶孽을 주축으로 하여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支配階級の 下位境界에 위치하여 權力으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은 體制안에서의 改革을 시도하는 兩班들과 달라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회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에 빠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하여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中人들의 階層狀況이다. 어떤 사람들은 韓國의 近代化에 있어서 中人들의 역할을 강조할지도 모른다. 中人은 주로 技術職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西歐의 技術的, 實用的 文物을 도입하는데 어떤 身分階

層보다도 적극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생각하기로는 中人은 身分이 비교적 높았고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社會體制를 변혁시킬 강한 의욕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도 朝鮮朝末期에서 經濟的으로 가장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身分階層은 常民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빈번했던 農民叛亂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직을 효과적으로 짜고 운영할만한 知識과 經濟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반항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舊秩序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秩序를 창조할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常民들의 대다수는 촌락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各姓으로 구성된 常民村에서는 사람들이 촌락의 공동문제들을 民主的으로 해결하고, 서로 平等한 자격으로 相扶相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의 좁은 村落共同生活에서 뿐이 아니고, 더 넓은 社會에서 그런 民主的 生活態勢를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강한 身分的 굴레와 官의 權威의인 통제에 억눌려 있었으며, 너무나 가난하고 또 무식하였다.

賤民들은 人格的으로 他人에게 예속되는 사람이 많아서 自主性을 갖기가 어렵고, 지역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어서 서로 단결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外來的인 思想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생각을 해볼 형편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사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社會적으로 重要性을 가질 운동으로 나타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朝末期에 西歐民主主義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단체는 獨立協會일 것이다. 獨立協會를 창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徐載弼이다. 그는 젊은 兩班知識層으로서 守舊派에 대항하여 金玉均등과 더불어 開化派를 형성하여 甲申政變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美國으로 망명하였다. 美國에서 그는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로 있다가 고국의 政治情勢가 호전됨에 따라 귀국하여 1896년에 獨立協會를 조직하고, 곧 이어서 韓國에서의 최초의 民間新聞인 獨立新聞을 발간하였다.

獨立協會의 機關紙라고 볼 수 있는 獨立新聞을 보면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價值觀念들에는 民主主義 또는 民主主義와 긍정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思想이나 觀念이 빈번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獨立新聞이 가장 높이 받드는 價值는 아니었다. 筆者는 獨立新聞의 論說을 內容分析의 方法을 적용하여 연구한 바 있지만,⁴⁾ 그에 의하면 獨立新聞의 論說에 나타난 최고의 價值는 忠君憂國하여 自主獨立을 견고하게 하고 國家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 目標의 價值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중요한 價值는 國民을 교육하여 開化시키는 것이다.

徐載弼은 당시의 韓國사람으로서는 美國을 비롯하여 西歐社會에 대해서 가장 깊은 지식을 가졌던 극히 소수의 사람중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그는 民主主義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日本이 西歐社會를 본따서 開化하여 재빨리 立憲君主國으로 탈바꿈한데 대해서 선망을 금치 못한듯 하였다. 그는 韓國도 빨리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잘만 하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에 있어서 잘하는 길은 국민을 깨우쳐서 近代國家의 국민의 소질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깨우치는 내용은 近代的인 學校教育을 하는 것이고, 특히, 科學, 技術, 기타의 實用的인 지식을 갖게 하며, 生活合理化를 실천하여 弊習을 타파하는 동시에 遵法精神을 갖고 바르게 행동케 하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價值는 生活合理化와 遵法精神의 함양과 비슷한 비중을 주고 강조하고 있으며, 國家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手段으로서의 價值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獨立新聞에서 강조하는 民主主義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民主的 代議政治를 말하는 것이며, 그런 政治體制를 확립하기 위한 國民의 정치참여와 言論의 창달이었다. 獨立新聞을 창간하게 된 것도 近代的 民主國家의 확립에 言論이 긴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이다. 代議政治 이외에 民主主義에 관련해서 獨立新聞이 자주 강

4) 李萬甲, “독립신문에 표시된 價值觀念”, 「韓治勳博士 停年記念 史學論叢」, (서울; 知識產業社, 1981), pp. 593~623.

조한 價値는 身分差別의 타파와 男女의 平等한 權利——특히 教育에 있어서의 平等——였다.

獨立協會의 표면적인 指導者들은 進歩의인 兩班들이다. 그들 중에는 徐載弼, 尹致昊와 같은 西歐物情에 밝은 兩班知識人 이외에 당시의 政府의 現職 또는 前職高官들도 적지 않게 들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鄉班·土班등 몰락한 兩班이나, 그에 준하는 身分背景을 가진 都市거주의 知識人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獨立協會를 지지하는 階層의인 基盤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렇게 짐작할 객관적인 증거는 별로 없지만, 한가지 중요한 근거는 獨立新聞이 순전히 한글만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한글은 諺文이라고 일컬어 漢文을 모르는 사람이나 婦女子들이 사용했고, 兩班은 眞書라고 불렀던 漢字를 주로 사용하고, 儒敎의 經書를 숭상하였다. 그러므로 獨立新聞이 한글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대상이 兩班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朝鮮朝末期에 變革을 시도한 또 하나의 중요한 組織體는 東學黨이다. 東學黨은 19世紀 후반에 崔濟愚에 의해서 창시된 宗教團體이다. 東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基督教라는 西學에 대해서 東方의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표면상 東學은 儒·佛·仙의 세가지 宗教의 要素들을 혼합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儒敎를 내세운 것은 儒敎를 받드는 官이나 兩班의 의혹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고, 佛敎도 그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런지 모른다. 東學에는 실제로 있어서 儒敎나 佛敎는 별로 두드러지게 가미된 것은 없고, 仙敎라고 부른 土着的인 民間信仰의 요소를 많이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東學의 敎理의 핵심은 人乃天思想이다. 人心은 天心이며, 吾心이 곧 汝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하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東學은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兩班의 횡포와 官의 탐학에 신음하는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고 동시에 民族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地上天國을 수립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東學黨에 관련된 사람들의 身分의 背景을 보면 그들은 兩班階層의 출신이 아니다. 우선 敎主 자신이 兩班출신이고, 東學組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接主들이 대부분 지방의 鄉班·土班들이었고, 信徒들은 三南地方을 비롯하여, 畿湖地方에서 널리 떨어진 農村住民들이었다. 그러므로 東學黨은 權力에서 소외되어 政治的인 挫折感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었고, 그의 追從者들은 兩班支配階級의 수탈과 억압으로 신음하여 실오리만한 것이라도 한가닥 광명을 주는 듯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붙잡으려는 생각이 간절한 사람들이었다. 이리하여 獨立協會가 일부 進步的인 兩班과 鄉班·土班등의 境界的 身分階層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결합하여 都市에 거점을 두고 西歐的인 近代化를 꾀한 집단이라고 하면, 東學黨은 鄉班·土班들이 農民들과 결합하여 農村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한 宗教的·倫理的 運動團體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朝鮮朝末期에 있어서 外세의 영향이 韓國社會에 미친 것으로는 資本主義經濟의 침투와 基督教思想의 전래, 두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資本主義經濟의 침투는 韓國에서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西歐의 列強國들 보다는, 재빨리 近代的인 社會로 탈바꿈을 한 日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日本은 자신의 資本主義經濟의 발전을 위해서 韓國에의 진출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東學黨에 의한 민중의 항쟁에 관련해서 淸國이 軍隊를 韓國에 파견하자 日本역시 파병하여 드디어 淸軍과 충돌하게 되었다. 淸日戰爭에서 승리를 거둔 日本은 韓國에의 영향력을 증대하여, 韓國에 손을 뻗이기 시작하던 露國과 다시 싸우게 되었다. 露日戰爭에서 이긴 日本은 본격적으로 韓國을 植民地化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日本은 文化的인 측면에서도 韓國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물론 西歐民主主義思想도 들어 있었다.⁵⁾

5) 開化派의 인물들은 福澤諭吉같은 日本의 民主主義思想家の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Kim, Samuel S., "The Developmental Problems of Korean Nationalism," *Korea: A Nation in Transition*, ed. by Kim, Se-Jin & Kang, Chi-W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8), pp. 169~199

基督敎思想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초기에 있어서는 주로 中國을 통하여 西歐羅巴人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舊敎였다. 그러나 資本主義國家들의 압력에 못이겨 鎖國政策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주로 美國에 중심을 둔 改新敎의 傳道師들이 韓國에 와서 敎會를 세우고 傳道事業의 일환으로 學校와 病院을 설립하였다. 이런 傳道事業을 통하여 韓國人들 중에는 점차 基督敎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敎會에서의 설교와 學校敎育을 통하여, 혹은 병치료를 받는 동안에 民主主義와 自由, 平等, 人權, 博愛등 民主主義의 인 價値觀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基督敎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基督敎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서 어떤 精神的 혹은 물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兩班들은 儒敎라는 精神的 支柱를 갖고 있다. 儒敎는 새로운 社會에서 物質文明의 발전에 도움을 못주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매력을 잃어가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워낙 兩班들은 오랫동안 儒敎에 젖어 있었고, 또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日本이 儒敎를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儒敎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基督敎가 낯설고, 특히 韓國의 美風인 祖上崇拜에 반대하거나 혹은 家長의 權威를 존중하지 않으며 婦女子들을 상대로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基督敎를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基督敎에 매력을 느끼기 쉬운 사람들은 都市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儒敎의 觀念에 덜 집착하며 舊秩序의 유지보다 새로운 변화를 회구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鄉班·土班, 中人, 그리고 商工業에 종사하는 常民배경의 사람들일 것이다. 基督敎는 초기에 있어서는 農村사람들에게 보급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까닭은 傳道事業이 우선 都市에서의 기반구축에 주력하여 農村에 힘을 펼칠 힘이 없었다는 것과 農村住民들은 保守의인 意識이 강하여 아직 民間信仰에 젖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東學黨이 淸日戰爭을 전후해서 탄압을 받게 되면서 東學信徒들중에 改新敎로 개

중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다.⁶⁾

결론적으로 말하면 朝鮮朝末期에 이르러 처음으로 西歐民主主義가 한국에 알려지고, 民主主義와 그에 관련된 價値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극히 少數의 젊은 知識人이거나 新進官僚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民主主義 보다는 民族의 自主獨立, 民族의 自由, 國家의 富強이었다. 한편 庶民들은 자기들간에서는 다분히 民主主義의인 共同生活을 실시하여 왔지만, 오랜 인습과 知識의 缺如 그리고 빈곤때문에 近代의인 民主主義의 觀念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도 兩班과 같은 人間이며, 人間으로서 대접을 받기를 갈구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를 合理的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宗教에 기탁하여 정신적 救援을 얻으려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래적인 土着信仰을 다분히 가미한 宗教들을 믿었지만 점차 基督教에 매혹되기 시작하였다.

Ⅲ. 日政期

日政時代에 들어서면서 韓國社會는 構造的으로 커다란 변모를 보이게 되었다. 日本人이 植民地統治에 착수하면서 社會上層에는 소수의 日本人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兩班들의 다수는 地主로 전환하여, 日本人의 庇護를 어느정도 받으면서 안락한 경제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鄉班·土班, 中人, 庶孽은 身分制度의 철폐에 따라 平民이 되어, 일부는 商工業, 기타 새로 생긴 職業에 종사하여 주로 都市에 거주하고, 또 일부는 小地主, 自作農, 혹은 自作兼小作農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에 常民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自作農 또는 小作農에 종사하고 일부는 都市로 移住하여 잡다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

6) 이것은 韓治勳博士가 Korean Repository에 근거에서 筆者에게 말한 내용이다.

다. 賤民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都市로 이동하여 社會의 下層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의 중요한 構造的 特性은 韓國인들이 전반적으로 階層的 下降移動을 강요당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都市에 유랑하거나 滿洲, 日本등 外地로 移住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外地로 移住한 사람은 아마도 대부분이 전에 常民이거나 賤民으로 있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인의 意識속에 되풀이되면서 깊이 새겨진 경험적 내용은 나라를 잃은 民族의 서러움과 日本人에게 차별과 학대를 당하는 비통한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韓國인은 강한 反日感情을 바탕으로 民族主義的 觀念을 간직하고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民族主義的 觀念은 韓國인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강도로 간직된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反日투쟁을 실천에 옮길 의욕에 불타있는 사람들은 젊고, 近代社會에 관하여 다소의 知識을 가진 사람들이며, 階層的으로는 부유한 兩班地主階層이나 혹은 반대로 무식하고 가난한 下流階層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보다도 中流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日政時期 전반에 걸쳐서 公共社會의 사건들에 관심을 갖는 韓國인의 대부분은 西歐民主主義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했을 것이다. 露國의 세력이 아시아에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美國과 英國은 초기에 있어서는 日本이 韓國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였지만,⁷⁾ 日本이 韓國을 植民地化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中國大陸에 침략의 손을 뻗치고, 점차 獨, 伊의 파시스트國家들과 제휴하여 全體主義國家로 변질됨에 따라 日本에 대한 태도가 악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경향은 政府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韓國에 나와 있는 宣教師나 기타의 민간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反日的인 韓國인은 日政末期에 갈수록 마음속 깊이 親西方의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7) Henderson, G.,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 121.

親西方的인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韓國人은 자연히 西歐民主主義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韓國人이 民主主義의 價値를 추구하려는 의욕이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西歐民主主義는 自我의 자성에 입각한 個人의 自由와, 個人이 다른 사람과 身分上으로 平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西歐民主主義는 自主·自立的인 人格體로서의 個人의 존엄성을 존귀한 것으로 보는 個人主義思想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人에 있어서는 個人의 人格의 존엄성, 個人의 自由와 平等은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는 여겨지고 있지 않았다. 個人은 어디까지나 家族의 한 成員으로서 社會에서 인정을 받았고, 家族을 떠난 個人의 自主성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東學에서 人乃天이라고 할 때 그것은 人格體로서의 個人이라기 보다는 집안을 대표하는 家父長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東學에서는 個人으로서의 自由와 平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身分上의 차별을 받지 않는, 家族을 대표하는 家父長의 自由와 平等이 중요했던 것이다.

韓國의 젊은 知識人들 중에는 3·1獨立運動이 뜻대로 성취되지 못하자 점차 左翼思想에 매혹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본래 資本主義의 성격을 분석 비판한 共產主義的 理論들이 젊은 知識人을 설득하는 힘이 강하였다는 것에 기인하지만, 소련 革命의 성공과, 日本내에서의 左翼思想의 擡頭가 그런 경향을 더욱 촉진시킨 것이다. 그러나 日本이 右傾化하고, 美·英 등 聯合國과의 적대적 관계가 악화하여 일체의 共產主義的 및 民主主義的 言動에 대해서 무자비한 통제를 가함에 따라 左翼思想은 물론 西歐民主主義의 思想도 표면상 韓國社會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基督教敎會는 神社參拜를 강요하는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여 소극적이긴 하지만 꾸준히 저항하였다. 그 저항은 물론 宗教의 信念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저항에는 강한 民族主義的 意識이 깔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시 國內의 韓國人에 있어서는 知識人에 있어서까지도 民主主義的 觀念은 意識속에 깊이 잠겨 있는

價値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그들은 西方國家들이 韓國의 獨立을 지지하기 때문에 西歐民主主義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강해진 하였지만 일부의 知識人들은 西歐民主主義가 부르조아民主主義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V. 解放後

第二次世界大戰은 聯合國의 승리로 종식되고 日本은 패망하였다. 그 결과 韓國은 급속한 社會構造的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째로 日本의 殖民地統治勢力은 일시에 韓國에서 송두리채 물러났고, 대신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에는 自由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資本主義的 自由企業體制를 유지하는 美國軍이 점령하였으며, 북에는 共產主義를 신봉하는 소련 軍隊가 점령하여 각각 軍政을 실시하였다. 자연히 남쪽은 自由開放體制下에서 안정을 찾는데 많은 혼란을 겪었고, 북쪽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밑에 신속히 共產主義的 體制개편을 단행하였다. 둘째로 南韓에서는 美軍政 기간에 日本人이 철수한 뒤에 남은 자리와 새로 생긴 組織體의 자리를 메꾸는 전반적인 階層上昇移動이 전개되었다. 세째로 農民은 전에 日本人이 소유하고 있던 小作地에서의 小作料를 3·7 制로 하는 정책과 農地改革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經濟的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네째로 共產統治를 기피하여 다수의 北韓人이 남으로 탈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에는 右翼과 左翼,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가지 색깔을 가진 政治團體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지만, 南韓은 東西 兩陣營의 冷戰이 첨예화하는 國際情勢下에서 北韓과 타협을 보지 못하고 결국 自由民主主義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8年 5월에 南韓만의 선거가 UN 감시하에 실시되었고, 同年 8월에 大韓民國이 수립되었다.

새로 탄생한 大韓民國은 憲法에서 民主共和國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러가지 制度가 民主主義原則에 입각해서 책정되었으며, 西方先進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制度를 現實의 條件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政府나 일반社會에서 강하였다. 政治人은 물론, 公共社會에서 책임성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民主主義者로 자처하였고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非民主的이라고 몰아 붙이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韓國社會는 韓國戰爭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번 소용돌이를 겪게 되었다. 즉 급변하는 社會에 적응할 능력이 부족한 前近代의인 保守主義者들과 小作料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던 地主들이 農地改革의 실시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 軍隊가 급속히 팽창하여 젊은이들을 흡수하였다는 것, 行政官僚와 高級將校의 權威가 강화되었다는 것, 다수의 國民이 戰爭이라는 局限狀況에 처하여 他地에서 어려운 飢寒생활을 체험하였다는 것 등이 전쟁기간에 생긴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이시기에 韓國人의 意識에서 일어났으리라고 짐작되는 중요한 변화는 韓國人의 대다수가 共產主義의 暴惡相을 체험하여 自由民主主義를 지지하는 태도를 굳히게 되었고, 지금까지 反日的인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던 民族主義에 反共의인 要素가 짙게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西歐社會에서 보는 것처럼 강한 自主意識을 갖고 個人主義의인 성격이 강한 民主主義觀念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休戰이 되면서 軍隊의 팽창, 또는 兵力소모에 따른 人員補充의 필요성은 없어졌다. 學校를 나온 사람의 상당수가 軍을 통과하지 않고 社會에 배출되었고, 또 軍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제대하여 직장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社會에서는 그들을 기다리는 직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⁸⁾ 또한 社會的 移動도 전과 같은 彈力性을 갖지 못하게 되어 승진의 속도가 느리게 되었다. 그것은 일반 관청이나 軍隊나 마찬가지였다. 젊었을 때 局長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승진한다거나 大領이 벼를 달 가능성은 전보다 훨씬 어렵게 되었다. 그러면서 해방후 부터 누적되고 전쟁의 혼란으로

8) 上掲書, p. 170

더욱 심해진 腐敗와 不正은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3.15 不正선거를 계기로 발생한 것이 4.19의 學生抗拒이다.

4.19事態는 부패하고 부정에 찬 獨裁的 政權을 넘어뜨린 최초의 民主的抗拒였다. 그것은 표면상 學生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실에 불만을 가진 中産層을 배경으로 하여 다수의 知識人과 言論人, 宗教人의 동조와 軍의 호의적인 中立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美國을 비롯한 西方國家들로 부터의 정신적 지원도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韓國사람들의 意識에 바탕을 두고 韓國人의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며, 외부적인 觀念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4.19事態이후 짧은 過渡期를 지난뒤 民主的인 선거를 통해서 內閣責任制에 의한 民主黨政權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民主主義를 표방하고 나선 民主黨政權下的 社會相은 희망을 걸만한 것이 못되었다. 社會에서는 매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데모를 벌여서 질서가 잡히지 않았고, 政府는 무기력하였으며, 執權黨은 파벌싸움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民主主義는 신념과, 비존과, 용기와 책임의 결여를 뜻하고 혼란과 非能率을 초래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政治人들은 입으로는 學生義舉를 찬양하고, 자기야 말로 民主主義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처하지만 거의 모두가 자기 個人의 權力과 地位에 집착하고, 민중이 놓여 있는 현실과 민중의 소리에는 별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4.19 직후에는 民主主義, 自由, 公明選舉, 耐乏生活 등의 價値가 소리높이 외쳐졌던 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自由나 빵이나 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民生苦難을 요구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5.16軍事쿠데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쿠데타는 韓國의 民主主義의 發展을 회구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民主的인 선거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가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이었다는 사

실에 대해서도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國民들은 軍事政府가 하는 일을 당분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開發途上國家에서는 政府가 강력해야 한다는 것은 先進民主國家들의 學者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었다. 더우기 韓國과 같이 第二次大戰후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얼마 안가서 北韓共產軍의 남침으로 국토의 태반이 폐허화했고, 계속해서 북으로 부터의 심각한 軍事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韓國으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政府가 강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력한 힘이 어떤 바람직한 절차를 통해서 自主的이고, 自主的이며, 責任性이고, 生産的인 능력을 가진 國民들의 의사에 입각해서 결집되고, 어떤 正義로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발휘되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軍事政府가 民政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行政的 民主主義, 民族的 民主主義敎, 敎導的 民主主義, 韓國的 民主主義라는 낱말이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 낱말들은 韓國의 현실을 고려할 때 西歐民主主義를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으며, 韓國의 토양에 맞는 어떤 제한적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着想은 軍事政權이 출생시킨 共和黨의 要員들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共和黨이 의도한 憲法과 選舉法을 가지고, 共和黨이 장악한 行政기구와 그 밖의 자원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共和黨은 두번에 걸친 大統領선거에서 곤소한 차로 승리를 거두어서 執權을 할 수 있었다. 共和黨政權은 초기에는 가급적 西歐民主主義의 諸原則에 합당하게 꾸미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계속 權力을 장악하고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政策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점차 民主主義의 근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共和黨政府가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자주 내세우는 것은 北韓으로 부터의 위협을 억제하는 國家安保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위한 政治的 安定의 유지, 두가지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最高權力者와 그를 둘러

싸고 있는 사람들의 강한 執權欲이 작용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립셋트가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國家의 富가 풍족하지 못한 開發途上國家에서는 官職의 상실의 執權層에 극심한 손실을 뜻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다.⁹⁾

朴大統領이 영도하는 共和黨은 民主主義的인 政治發展의 계획수립을 도외시하였다. 그는 집권초기에 스스로 國民에 약속한 民主主義의 내용조차 실천을 미루든가 혹은 일방적으로 破棄하였다. 그대신 國民의 물질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野黨, 在野의 反對者, 學生들의 도전은 공연한 말썽만 일으키는 왜방꾼의 트집으로 보면서 國民은 그들의 말에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國民이 먹을 것만 주면 언제까지나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왜냐 하면 國民들은 예전부터 무식하고 무기력하며 굶주리고 있어서 먹을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상당한 근대적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점차 강한 自我意識을 갖기 시작하였다. 自我意識을 가진 사람은 행동의 主體者로서 물질적 풍요에만 안주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自己實現을 위해서 책임성 있는 참여를 통하여 自由와 平等이 보장되는 社會에서 끊임없이 價値를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自我意識이 충분히 성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으로 부터의 위협이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國民들중의 상당수는 民主主義의 실현을 위하여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까봐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9) Lipset, S.M., *Political Man: The Soci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and Co., 1959), p. 66

V. 結 論

西歐民主主義의 價値는 격동하는 朝鮮朝末期에 진보적인 정치세력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때는 個人보다도 民族의 自由가 위기에 놓여 있었고, 또 個人의 自由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個人의 自我意識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韓國의 土壤에 이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버렸다.

日政時代에는 西歐民主主義는 西歐의 다른 近代的 價値와 더불어 책속에 담겨져 있는, 知識人에게 다소 매력있는 價値項目으로 간주되었지만, 民族의 自主獨立이라는 최고의 價値를 쟁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범위내에서만 존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學校, 新聞, 放送, 教會, 기타 近代的인 組織體와 大量媒介體를 통한 교육과 정보 전달로 말미암아 韓國은 西歐先進國들의 文物에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西歐民主主義의 價値에 대해서도 여러 모로 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식은 韓國人의 意識속에 깊이 새겨지지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은 韓國人이 행동할 때 전보다는 더 강하게 民主主義의인 價値를 감안하게 하는 정도의 효과는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해방후 西歐民主主義는 公共社會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約束語가 되었으며, 政治人에게는 身元保證書였다. 政黨에게는 그것은 간판이었고 野黨에게는 與黨을 공격하는 武器로 활용되었으며, 與黨으로는 추한 것을 감추는 塗料의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를 民主主義者라고 주장할 만큼 民主主義者였던 사람은 찾아 보기가 어려웠으며, 民主主義者이기는 커녕 權威主義的이거나 심지어 反民主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韓國人이 民主的인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해방당시에 비하면 韓國人은 훨씬 民主的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고 생각된다. 韓國社會는 오늘날 構造의으로 전과는 상당히 모습을 달리 하고 있다. 불과 20 여년 전만 해도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 밀에 두텁게 깔려있는 피라밋型的 社會였는데, 지금은 國民전체의 교육수준이 先進國에 비견할 만큼 높아졌고 또 社會構造도 中産層이 두터운 다이아몬드型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人은 西方의 物質的, 技術的 文明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精神文明, 특히 地位의 配分에 관련된 西歐의 觀念形態에 관해서는 西歐의인 것을 받아 들이는데 적지 않은 주저와 저항이 있다.

韓國社會에서 基督教が 짧은 기간에 급속히 보급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¹⁰⁾ 生의 궁극적인 目標에 관한 믿음이라고 할 宗教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에 있는 外來的인 宗教는 支配階級에 봉사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반서민들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은 基督教을 믿는데 특별히 저축이 될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身分의 配分에 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宗教보다도 韓國人에 있어서는 저항을 하게되는 意識의 要素를 강하게 갖고 있는 듯하다. 이미 三國時代에 新羅는 中國으로 부터 새로운 制度를 많이 받아 들였지만 身分差別意識만큼은 유난히 강해서 身分에 관련된 中國의 制度는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것은 주의 깊게 고려할 歷史的 解釋이 아닐까 생각된다.¹¹⁾

많은 사람이 基督教로 쉽게 改宗할 만큼 韓國人은 西歐의인 것에 대해서 好意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西歐民主主義에 대해서 특별히 好意的이 아닐 이유는 없다. 그것은 잘사는 나라들이 잘살게 된 原理도 광범하

10) E. de S. Brunner, "Rural Korea," *The Christian Mission in Relation to Rural Problems*, Vol. VI, (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28)

11) Reischauer, E.O. & Fairbank, J.K.,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8), 全海宗, 高柄翊 譯, 「東洋文化史」, (서울, 乙僞文化社, 1964), p. 526, pp. 533~535

게 인정되고 있고, 또 우리가 自主獨立을 쟁취하는데 도움을 준 나라들의 政治哲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執權者로 볼 때에는 그것은 당장 자기의 地位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 허약한 體質을 벗어나지 못한 韓國社會의 존립에도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염려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國民들 중에도, 아직 충분한 自主意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무제한한 民主化가 家族과 地域社會의 統合을 해치고 결국에 가서 國家의 安危마저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 것이다. 필자는 60年代 中반에 地方自治에 관련해서 農村住民들을 대상으로 意見調查를 한 바가 있다. 그때 주민들의 절대 다수는 面長과 郡守는 자기들 손으로 뽑는 것에 찬성했지만 面議會, 郡議會議의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自由黨시절의 地方議會가 적지 않은 逆機能을 露出하였기 때문일 것이다.¹²⁾

西方의 民主主義國家에서도 民主主義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¹³⁾ 그러나 筆者는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생활이 他人에 의해서 부당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그런 意識이 곧 自主意識이며, 自主意識을 가진 人間의 人格體를 존중하고, 그가 自由意思로 자기의 生活을 규제할 수 있게 한다는 基本的인 인식에 입각해서 발전된 政治的, 倫理的 理念이 民主主義라고 생각한다. 다만 西歐民主主義는 個人主義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家父長的인 통제 밑에 家族成員들과 강한 유대를 갖고 살아온 韓國人은 個人主義의 이 아니며, 個人主義의 價値에 好意的인 아닌 듯하다. 筆者는, 社會가 육체를 가진 個人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個人이 自我意識을 갖고 主體的인 人間으로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社會에 참여하여 자기의 人格을 발전시키고, 또 같은 존엄한 人格을 가진 他人과 自由意思에 입각

12) 李萬甲, 「工業發展과 韓國農村」,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p. 368

13) Carleton, W.G., "Is Democracy to Blame," *The Virginia Quarterly Review*, Spring 1957

해서 협력하여 社會를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個人主義라면, 個人主義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은 價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個體를 가지고 출생하고, 個體로서 社會生活을 하고, 個體로서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個人은 社會的 文化的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生物學的인 면에서도 본질적으로 社會關係的인 存在이며, 특히 家族같은 것은 社會의 基本的인 單位로서 진정한 人間性的인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個人에 치중하는 西歐의 個人主義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集團的 紐帶와 社會的인 責任性을 강조하는 價値觀을 함양하는 것이 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韓國人은 家族속에 人格이 매몰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서 自主的인 意識이 약하고, 따라서 民主主義의 價値를 實現하려는 의욕도 충분히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民主的인 力量은 점차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에 西歐民主主義의 여러가지 모델은 韓國人이 자기에 맞는 民主主義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델들은 참고적인 價値 이상의 價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民主主義와 같이 모든 人間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權力과 財富과 威勢의 配分에 근본적으로 관련되는 觀念形態는 物質的, 技術的 觀念처럼 쉽게 또 소규모의 調節로 受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수용하는 측의 社會에서 오랜 歷史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형성한 意識構造의 深層에 부합하여야만 적절히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것은 많은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觀念形態와 수용의 主體者인 사람들의 意識構造의 雙方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